

『歷史學研究』 원고작성법

1987. 3.14 제정

2001.12.21 개정

2005.12. 9

2006.12. 9

2011. 1. 6

I. 일반원칙

1. 범위: 한국어·동양사·서양사·역사이론 등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종류: 연구논문·비평논문·논단·서평·자료소개 등을 투고할 수 있다.
3. 자격: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인 경우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
4.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비평논문과 논단은 100매 내외, 그리고 서평과 자료소개는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5. 작성: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한다.
6. 저자: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한다.
7. 목차: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 II, III.....)로 표기하고, 그 이하의 목차는 1, 2, 3...; 1), 2), 3)...; ①, ②, ③... 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초록: 원고 제출시 A4용지 1장 분량의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9. 주제어: 원고 제출시 국문 및 외국어로 된 5-9개의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한다.
10. 참고문헌: 논문 끝부분에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한다.
11. 저작권: 필자는 학회지에 실린 글의 일부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을 학회에 양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II. 각주 표기방식

1. 모든 주는 각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양어 서적의 경우
단행본, 신문, 잡지명은 『』(반각) 안에, 논문 및 기사제목은 「」(반각) 안에 표기한다.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는 ()안에 표기한다. 저자 이름과 논문 사이, 논문과 편저자 사이, 편저자와 서명 사이, 출판사와 출판년도, 출판년도와 쪽수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홍길동,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쪽.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김삿갓, 「홍길동을 위한 시」, 홍길동 편,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40쪽, 33쪽.

잡지의 논문: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2002), 49-74쪽, 50쪽.

3. 서양어 서적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는 () 안에 표기한다. 저자 이름과 논문 사이, 논문과 편저자 사이, 편저자와 서명 사이, 출판사와 출판년도, 출판년도와 쪽수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21쪽.

역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김삿갓 역, 『한국의 영화』 (모래출판사, 2011). 30쪽.

- 논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Satgat Kim, “A Poem for Gildong,” Gildong Hong(Ed.), *Korean Cinema*, 1 (Berlin, 1900), 20-40쪽, 33쪽.

잡지의 논문: Michael D. Bailey, “A Late Medieval Crisis of Superstition,” *Speculum* 24/3 (2009), 633-661쪽, 656쪽.

4. 출판장소와 출판사 이름은 동양서와 서양서 모두 필자의 편의에 따라 둘 다 쓰거나 둘 중 하나만을 쓸 수 있다. 논문의 경우 출판장소와 출판사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5. 쪽수 표기는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만 표시한다. 그러나 편저나 잡지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첫 번째의 인용에서는 논문이 게재되어있는 처음과 끝 쪽수를 기입한 후 인용한 쪽수를 표시한다. 두 번째부터는 인용한 쪽수만 표시한다.

6. 漢籍本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 『』로 묶고, 하위는 「」를 쓰되, 다시 나눌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라 판본을 밝혀 준다. 단, 판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經書나 史料일 경우,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할 수 있다.

- 판본을 밝혀줄 경우

→ 康廣仁, 「報易一盡」 『戊戌六君子集』 X期 (上海, 近代史資料集刊, 1992), p. 32.

→ 魏源, 「外藩·乾隆戡定回疆記」 『聖武記』 卷4 (北京, 中華書局, 1984), pp. 34-45.

→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 『論語』 卷1, 學而.

→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3日 壬申.

→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7.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 일반적인 표기

→ 蔣伯潛·蔣祖怡 共著/최석기·강정화 공역,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 鹽野七生/김석희 역, 『르네상스의 여인』 (한길사, 1996), 56~70쪽.

→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 (솔, 1997), 124쪽.

-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경우 콜론(:)을 사용한다.

→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100쪽.

8. 각주 내에서 서명을 인용할 경우, 인용대상을 제외한 부수적인 서지사항은 모두 괄호로 묶어서 처리한다. 불필요한 서지사항은 괄호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 대표적인 견해로는 田村實造(『均田制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との關係』 『史林』 45-6, 1962)와 王仲(『北魏初期社會性質與拓跋宏의均田』 『文史哲』 1955-10) 등이다.

9. 각주 내에서 괄호 안에 참고문헌을 달 경우는 해당 문장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하고, 각주 전체의 내용일 경우 괄호를 묶지 않는다.

→ 13세기 몽고인들도 라시드 앗 딘의 『集史』(金浩東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252~253쪽)에서 그 祖上에 대해 鮮卑拓跋部가 森林속에서 살았던 것(『魏書』 卷1, 序紀)과 유사한 回想을 하고 있다. 朱學淵, 「鮮卑民族及其語言線索」 『文史』 54, 101~102쪽.

10. 같은 논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때 필자가 구분을 원할 경우, 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다.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대학보』 (이대사학회, 1958. 11.): 『민족과 역사』 (서울, 일조각, 1971, 新版 1995), 45쪽.

11.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 고병익, 「전통의 의미」, 『동아시아의 전통』 (일조각, 1976); 조지훈, 「전통의 현 대적 의미」, 『한국문화사서설』 (탐구신서, 1964); 박종홍, 「문화의 전통·섭취·창조」, 『사상계』 63 (1958. 10.)

12.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 『齊朝一士大夫 嘗謂吾曰 ‘我有一兒 年已十七 頗曉書疏 教其鮮卑語及琵琶 稍欲通解 以此伏事公卿 無不寵愛 亦要事也’ 吾時俛而不答. 異哉 此人之教子也! 若由此業 自致卿相 亦不願汝曹爲之.」 「教子2」, 『顏氏家訓』 卷1 (北京, 中華書局, 1993), 21쪽.

13.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연·월·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 강만길, 「휴전선에 통일연구소를……」,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1. 1. 21.), 2면.

14. 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15.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拙稿’나 ‘筆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준다.
16. 바로 앞에 나온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동양어 문헌의 경우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책’이라 표기하고, 서양어 문헌일 때는 ‘Ibid’로 표기한다. 쪽수가 같을 경우는 위와 같이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지만, 쪽수가 다를 경우는 쉽표 다음에 쪽수를 적고 마친다.
17. 앞에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이름(서양문헌의 경우 성만 씀)과 간략한 제목을 적고 쉽표를 찍은 후 쪽수를 적고 마친다. ‘앞의 책’, ‘앞의 논문’, ‘op. cit.’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18. 필요한 경우 필자의 표기방식을 따르되, 논문 안에서 일관성을 지킨다.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역사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III. 인용 방식

1. 모든 인용문(漢文포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로 된 인명, 지명, 사건명, 논저명의 경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붙여 표기한다.
3.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각주 속의 인용문도 이와 같다.
4.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5.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별도 처리한다. 단, 강조의 경우는 한 문장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표시를 한다.
6.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겹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을 띄우고 본문보다 한 포인트 작은 글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앞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괄호 안에 넣는다.
7.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原典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8. 인용문 내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 伊川선생은 “顔回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이다.”라고 했으니…… (×)
 - 司馬遷은 “子貢만이 三年喪을 더하였다”고 하였다. (○)

IV. 참고문헌 표기방식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적는다.
2.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3. 1차 사료와 2차 사료는 각각 동양어 문헌을 먼저 적고, 서양어 문헌은 나중에 적는다.
4. 1차 사료는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적어야 하며, 그 외의 방식은 필자의 편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

5. 2차 사료에서 단행본을 먼저 적고, 일반논문을 다음에 적는다. 학위논문은 일반논문에 포함시키며, 그 외의 사료는 필자의 판단대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적는다.
6. 참고문헌 배열순서는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한다. 일본인, 중국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서양서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기타 언어는 각 언어별로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7. 참고문헌은 각주 표기방식에서 적은 문헌표기방식을 따른다. 단지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 표시는 할 필요가 없으며,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만 표기한다.

동양어 서적의 경우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홍길동, 『홍길동전』 4 (서울, 2000).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김삿갓, 「홍길동을 위한 시」, 홍길동 편,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40쪽.
잡지의 논문: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2002), 49-74쪽.

서양어 서적의 경우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역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김삿갓 역, 『한국의 영화』 (모래출판사, 2011).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Satgat Kim, “A Poem for Gildong,” Gildong Hong(Ed.), *Korean Cinema*, 1 (Berlin, 1900), 20-40쪽.
잡지의 논문: Michael D. Bailey, “A Late Medieval Crisis of Superstition,” *Speculum* 24/3 (2009), 633-661쪽.

8. 참고문헌 목차

참고문헌

1. 1차 사료
 - 1) 동양어 문헌
 - 2) 서양어 문헌
2. 2차 사료
 - 1) 동양어 문헌
 - ① 단행본

② 논문

③ 기타

2) 서양어 문헌

① 단행본

② 논문

③ 기타